



통원25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11.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5



아빠! 보고싶어요

1981년
재일교포간첩사건으로
구속되어 13년째
북역중인 이현치씨의
아들 성오(13세) 군의
그림입니다.

남편과 함께 연행된 부인은
보안사에서 조사받던 중
이성오군을 낳았습니다.

- 언 제 ; 1993년 12월12일 (일) 오후 3시
- 어디서 ;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 누 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무한한 인류’ 편에 서 계시는 평화통일일꾼

편집부

보 천동 언덕배기 중턱에 위치한 선생님의 방에는 작은 철제 밥상위에 신문과 철학사전이 놓여 있었다. 김석형 선생님은 체육복 바지에 낡고 조금 작은듯한 슈타를 입으신채 “제시간에 왔구만” 하고 웃으며 우리를 맞으셨다. 선생님은 많이 마르셨지만 꼳꼳한 자세와 뚫어질 듯 바라보시는 눈매, 정확한 발음 등이 무척 건강하고 단아한 인상을 주신다.

인터뷰라는 것이 대상의 삶이 그대로 조명되기보다는 늘상 매체의 성격과 쓰는 이의 취향에 따라 지나치게 각색되어지곤 하는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김석형 선생님은 그동안 인터뷰를 마다하셨고, 이번 만남 역시 후원회로서는 참 어렵고 귀한 자리였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보다 듣는 사람이 잔뜩 긴장해 애꿎은 방석만 들썩거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하나 어색해하고 있었다. 이런 모양이 우스웠던지, 선생님께서 먼저 할아버지를 대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하자고 긴장을 풀어주셨다. 그래도 쑥스러운 웃음만 짓고 있자, “먼저 나의 고향, 어린시절, 가족관계 등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렇지?” 라고 말문을 여셨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인터뷰가 시작된 것이다.

선생님은 1914년에 평북 박천군 덕암면 남호동 일명 궁골에서 5남6녀중 막내아들로 태어나셨다. 유교적인 집안에서 글씨 한자를 까먹을 때마다, 회초리 한대씩 맞으며 다섯살에 천자문을 떼고, 9살까지 집과 서당에서 전통적 주입식 교육을 받으셨다. 9살에 보통학교에 들어가시고, 보통학교 시절인 14살에 결혼을 하셨다. 결혼은 했지만, 늘 서재에서 공부만하고 부친이 1달에 1번 정도로 허락하는 날에만 신방에 가서 새색시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유물사관을 알게된 것은 신의주 중학교를 다닐때, 일본에 유학갔다 유물사관을 접하고 돌아온 선배들을 만나면서였다. 중학을 졸업하고 견심청년단을 조직해서 야학을 하면서 일제에 반대하는 계몽운동을 벌였고, 이로인해 일본경찰을 피해서 피신다니기도 하셨다. 이때 절에서 도사를 만나 요가와 식이요법, 골상학등을 배우시기도 하셨다는데, 선생님은 지금도 후원회원들의 골상을 봐주신다. 부친이 지적도를 만드는데 반대하시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셨다는 이유로 일본에 갈 수 있는 도강증이 통과 되지 않아 중국의 장춘으로 유학을 가셨다. 여기에서 상업부기를 배우는 실무학교를 다니셨고 지원군 모집을 피하기 위해서 수리조합에서 일하셨다. 해방이 된뒤 고향에 돌아와서 면당을 조직해 계속 당기관에서 일하셨고, 전쟁기간 중에는 정치보위부 제1과장을 맡으셨다.

선생님은 중국유학 시절에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박정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년에 “황태성 밀사” 다음으로 박정희를 만나러 내려오셨다고. 그러나 접촉이 어려워 한의원을 경영하시기도 하고 시장에서

야채장사, 생선장사등을 하시다가 61년에 체포되셨다. 이후 경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군사재판에서 반공법 6조 3항에 적용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살 욕심이 없으셨다는 선생님은 민사재판으로 넘겨져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91년 12월 24일 출소하실 때까지 30년간 감옥생활을 하셨다. 감옥안에서 전향 공작 등 많은 고통이 있었으나 그래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인간과 소외되어 산것'이었다고 한다.

출소하신 뒤에는 아산요양원에 계시다가 '나눔의 집, 송경령신부님의 주선으로 서울로 올라오셔서 지역 운동을 하시는 정봉수님댁에 계시다가 "천정련"에서 마련한 봉천동 "만남의 집"에 사시게 되었다. 선생님의 가족은 북에 부인과 4남 2녀가 있다.

참으로 진솔하고 치열한 삶이었다. 하지만 지독한 반공교육을 받아온 나로서는 어리둥절한 것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전쟁기간에 함경도 해산까지 후퇴했다가 중국인민지원군과 같이 나오셨다는 대목에서 불쑥 "아! 1.4후퇴때요."라고 했다가 속으로 "아니지, 개념이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묘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내 고향인 문산의 임진강을 건너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속에서 국민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간첩 식별하기 교육이 생각나기도 하였다.

간첩 혐의의 김석형 선생님은 체포되신 후 일제 때부터 형사를 하던 경찰과 "너는 간첩이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라는 말 하나로 고문을 당하셨다. 선생님은 서울도 내 땅이고 우리민족, 우리선조의 땅인데, 내가 내 발로 내 땅에 내 의지대로 왔는데, 어쩌서 간첩이냐고 하신다. 그래서 내려오실때도 쉬운 제 3국을 통한 길, 해상을 통한 길을 마다하고 가장 위험한 육로를 택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내땅을 가는데 빙빙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고집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척이나 위험한 결정은 단순한 고집은 아니었으며 선생님의 통일조국에 대한 확연한 의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좌우명은 자유, 자주, 평등, 평화이다. 이 네가지 좌우명을 아침 저녁으로,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자주가 필요하고 평등이 필요하며 평화가 필요한지, 그것의 쟁취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새겨 생각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인류는 무한하다."라는 원칙을 갖고 계신 선생님은 사회발전의 합법성을 믿으시고 따라서 통일도 가까운 시일내에 필연적으로 온다고 확언하신다. 그러나 막연한 통일에 대한 점치기는 휴거의 시기를 정하는 종말론자와 같다고 하신다. 이 사회에 계급 모순, 민족 모순, 체제 모순이라는 3대 모순이 있는데,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없이 막연한 통일에 대한 환상만을 가진다는 것은 게으른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3대모순의 해결과 통일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김석형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장기수"와 "빼앗긴 세월"이라는 말이다.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결코 누구에게 빼앗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당당하게 사셨기 때문이다. 또한 살인범도 장기수인데 장기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듣기 싫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스스로는 "평화통일일꾼"으로 불러 달라고 하신다. 이땅의 평화통일 일꾼으로 80생애를 살아오신 선생님의 아픔은 너무나 크다. 새색시를 자주 못만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신방에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속삭이며 웃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목이 메이고 눈물이 고이시는 선생님을 보며, 고향에 대한 향수, 부인 자식을 뵈고 싶어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깊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연코 말씀하신다.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제일먼저 고향에 갈것이지만, 방북허가서를 정부에 내고 조건부로 가는 고향은 절대

가지않겠다”고 제3국을 통한 가족과의 편지왕래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분명히 가족들이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그러한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편지왕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다. 선생님의 주민등록증 신청에 법원에서는 “이유없음. 기각함.”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해야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은행 구좌개설, 제주도 여행, 영세민 혜택, 경노우대증 등등 이러한 사소한 걸림돌 이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모독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현실이다. 대충의 인터뷰(?)가 끝나자 선생님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말씀하신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문학의 장르를 모두 없애고 개인주의 문화만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리기위해 요즘 연구중이시라고 한다.

평화통일일꾼 김석형, 이땅에 살고 계시면서 주민등록증도 없이 공중에 계신 김석형 선생님. 신세대를 알기 위해서 압구정동에도 가보시고 노래방도 가보셨다고 하시는 선생님. 그저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시고 봉천동 주민들과 함께 하기위해 서두르시는 선생님. 사람과 떨어져 있던 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것은 후원회원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목이 메시는 선생님.

김석형 선생님... 선생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분명 평화통일일꾼이며, 처음엔 약간 냉정해보이지만 무척이나 섬세하고 다정다감하신 할아버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집을 나섰다.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 행사에 참가하신 김석형 선생님.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다.

내일을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배 숙 영 (28세, 한겨레신문사 비서실근무)

6 시 40분이면 하루가 시작된다.

능곡으로 이사온지도 반년이 넘었다. 아침은 절대 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당번인 날은 더욱 분주하다.

그러나 남자들은 세수하고 옷만 입으면 그만이지만 여성인 나는 머리손질도 해야하고, 화장도 해야하고, 그래서 더욱더 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날 그날 식사당번은 정해져 있어도 시간이 남는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침을 먹고 남편과 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출근 조깅을 시작한다.

외출복에 구두차림의 출근을 위한 조깅을 강행해야 하는데 우린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라도 모자라는 운동량을 보충해야 한다고 자위하며 후평까지 부치곤 한다. 이렇게 하루는 시작되고 종착역인 서울역에 닿으면 우린 서로 저녁에 뜨는 늦은 밤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각자의 일터로 떠난다. 사무실에 들어서 자마자 전화벨부터 울려댄다.

나는 한겨레 신문사 비서실에 근무한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일한지 벌써 6년째다. 이 원고를 쓰면서 새삼스레 지난 가까웠던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분명 순탄하기만 했던 시간은 아니었다.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기만 하다.

한겨레 신문이 창립될 때의 설레임과 벅찬 감동이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주주 독자들이 보내준 성원은 한겨레 구성원들이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채찍이었다. 그리고 민주언론 창달이라는 과제는 한겨레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의무며, 관제 언론으로부터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과 맞서 싸워야 했고 또한 주주독자들의 끊임없는 민주언론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받아들여야 했기에 수많은 갈등속에서 고민했다.

그러나 한겨레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일했다.

때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며 열면 토론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늦은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저 직장동료라는 생각보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한겨레이기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독자들에게 애정어린 비판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러한 비판과 격려 속에서 한겨레 구성원들은 꿈틀거리며 내일을 보고 뛰어갈 것이다.

“상득이가 안에 있으니 나래도 싸울거예요”

편집부

“**고** 사장 막일에, 근처 논밭으로의 품일에 정신없이 사느라 뒷바라지도 못해 줬는데, 암전히 공부만 하는가 싶더니 더럭 서울의 큰 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고 필적 뛰는 애 아버지를 설득해 등록을 시키고 서울서 자취를 하게 했지요. 그때부터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한게 데모에 들지 말란 소리였는데, 이젠 도리어 내가 이려고 다니니 참 세상사 모를 일ियो.”

그날도 어머니는 한 양심수의 공판 때문에 법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 했다. 재판이 어떠했냐는 말에 새삼 경찰들의 무례한 태도에 분개하시다가, 곧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따뜻하게 웃어 주신다. 사무실 간사들에게의 인기 비결이 그 푸근한 웃음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상득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진 경상북도 봉화에서 살았다네. 그러다 내리 3년을 가붙어 농사를 짖망치게 되자 영주군으로 이사를 했지. 애들은 전부 3남 2녀인데 그중 상득이가 젖루 순했어요.”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던 아들이었던 상득군은 계속 착실하게 공부하더니 89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합격한다.

89년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된 대중의 요구가 이어져, 그것을 억누르려는 정부와의 잦은 대립이 계속되었던 해였다.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경찰과 학생들의 대치 모습이나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모습들은 항상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게 했다.

그러다 90년 막내가 서울로 전학한 후에는, 어머니도 서울로 상경하여 함께 지내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서 걱정할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91년엔가 갑자기 한 두달간 연락도 없이 안들어 옵니다. 그때가 학생들이 많이 죽고 일을 당하고 하던 때여서 더 조마조마 했지요. 그러다 어마이 생일이라고 집에 들어 왔는데, 흰 고무신에, 머리는 삭발을 하고, 말라서 배배 비틀어 질라 하는 행색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도 씩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애가 뭐 생각은 있겠지 하는 마음에 야단도 많이 못쳤다. 그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도 받아내고 상득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다시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던중 92년 9월, 어머니를 주저앉게 만든 일이 생겼다. 상득이가 갑자기 강제연행 되었던 것이다.

“어마이 바보라서 더 했어. 그날따라 상득이랑 둘만 집을 지켰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 다섯이 경찰이라고 들이닥쳤어요. 집안을 온통 드려봐도 덜덜 떨기만 했을 뿐 신분증이나 영장보자는 소리도 못했으

니 내가 정말 바보였지.”

상득이가 연행되어 가고 났을 잃은 채 앉아 있다가 형이 돌아온 후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그때서야 상득이를 그냥 보낸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달았다. 학교에 연락해도 알아볼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 편지 한통을 받았다. 상득이가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혐의 내용은 간첩단 조직의 학생동맹 총책을 맡았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은 9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남짓 앞두고 발표되었다. ‘36년간의 고정간첩’이니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니 하며 요란하게 보도되었던 이 사건은 여느 때의 간첩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관련 구속자들은 애초에 사건의 내막도 모르는 채, 안기부의 불법연행, 고문, 구타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되었고, 국민들에게는 끌어오르는 민주정부 수립의 열기를 냉각시켜 보수의 바람을 일게 했다.

“편지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안기부 건물 앞에서 전경들과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강제 연행된 사람들의 가족이었지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민가협 어머니 의시위를 하고, 밤에는 기독교회판다. 순하기만한 우리 아들이 간첩이를 얼마나 했다고... 억장이 무너질 “첫 면회때 나를 보더니 울어, 놀라지만, 며칠을 계속 싸워 악이 오를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 막 야단을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할일을 검찰에서 요구하는 반성문을, 반성때도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다. 자신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도 납득되지



들과 함께 낮에는 안기부 앞에서 항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며칠을 보냈라니, 그 어린 것이 그간 뭘 나쁜 일이었다.

고 억울한 가슴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대로 올라 있어서 그런지 난 눈물도 처졌지.

해야지 울긴 왜 우냐구.”

할 것이 없다며 상득이가 거부했어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 앉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최후진술하는 애길 들어보니 구구절절 웅은 말입니다. 대학 들어와 이 사회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썩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쪽 애길하대. 또 북한이 왜 반국가단체가 되느냐고 요밀조밀 따지는데 진짜 반성할 게 하나 없어요. 그래, 재판 끝나고 내 그랬어. 반성을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위에 앉은 판, 검사라구 말이야.”

상득군은 1심에서는 10년 구형을, 2심에서는 4년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재판결과에 실망도 실망이지만, 가족이나 변호사에게조차 통고없이 연기되곤 했던 재판 자체도 가뜩이나 위축되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한다.

일하는 공사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혹 신경쓰다 사고라도 날까봐 가족들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던 아버지는, 안기부가 사진까지 넣어 만들어 지방으로 돌린 책자를 보고 크게 낙심하셨다고 한다. 워낙 완고하여 아직 면회 한번 안가본 양반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날이 있을거라 하시며 어머니는 또 웃으셨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상득이의 앞길이지요. 학교를 마친들 나와서 무얼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잠도 안와요. 혼자 잘 살려는 이기주의 아니고 더불어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면야 오죽 좋겠소? 상득이가 안에 있으니 나라도 싸울 거예요.”

심상득 군은 며칠 전 영등포 구치소에서 목포 교도소로 이감을 갔다고 한다. 자신의 일은 역사가 판단해 줄 거라고 위로해 주던 아들. 곱던 엄마 얼굴이 자기 때문에 많이 상했다고 미안해하던 그 아들을 보려면 이제 몇시간의 먼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갈 그 먼길보다, 목포로 가면 상득이를 면회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더욱 걱정일 어머니이다.

“아들 일이 터지고 여러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의 잘잘못이 어느정도 눈에 보입니다. 문민정부라 생색내고 한국병 고치겠다고 큰소리쳤으면 과거의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해야 당연 이치인데 이렇게 간간하게 구니 영 못마땅해요. 요전번 대전에서 싸움했을때 나는 정말 놀랐어요. 43년 넘게 감옥에 계시는 분이 있다니. 연세 많으신 분이 얼마나 괴롭겠소. 그분들을 더이상 죄인 취급해선 안될 일이지요. 그렇게 데모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젠 내가 데모를 하고 다니니 상득이가 나를 가르친 셈이지요.”

공장에서의 시다일 몇개월, 아파트 공사 건축일 몇개월에 몸이 많이 축나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어머니는, 그래도 설마 굶기야 하겠냐며 또 웃음 지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모든 분들의 누명이 벗겨지겠지만, 그때까지 쌓일 그분들과 가족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는가. 가슴의 한을 감싸 안으며 웃음 짓는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애국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간첩으로 내몰리는 슬픈 현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 '민족해방애국전선' (일명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시위를 벌이신 김성한 어머니. 오른쪽에서 두번째 서계신 분이 김성한 어머니.

아! 난 지금 나의 후원인들을 만나고 있구나!

고미애 (27세, 회사원)

매 달 달력을 갈아 끼을 때마다 맨 먼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간들에 대해 동그라미부터 그리게 된다. 그 가운데 셋째주 일요일도 여지없이 그 동그라미가 쳐진다. 시원하고도 셋째주 일요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가움을 머리속에 떠올리면서 길을 나선다. 약속시간에 딱 맞추어 가려고 시간을 계산해 놓고 출발하지만 버스타고 전철타고 그렇게 그렇게 갔는데 삼십오분전이다.

아무도 아직 오지 않았으리라는 자신감과 허겁지겁 서둘러 온 어색함을 느끼며 당고개역에 내렸을 때 저만치서 한결음 한결음 조심스럽게 걸어 나가고 있는 백발의 모습이 보였다. 최남규 선생님!

선생님의 병실한 웃음과 꼭 맞잡은 손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인사하기에 바빴다. 당고개역 바깥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더 일찍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이런 실수가! 그분들에 대한 나의 낯설음으로 인해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저 사람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산에도 사람들이 산행을 많이 하나보다 하면서 말이다. 다음엔 내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야지.

한사람 한사람 손인사 눈인사가 많아지면서 작은 걱정(?) 하나가 생겼다. 선생님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지금 내 가방 안에는 도시락 하나, 그리고 초콜릿과 꿀 몇개가 고작. 이걸 어떻게 나누어 먹지? 좀 더 많이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 나의 기우로 끝났음을 미리 밝혀둔다.

네살박이 '모아라'로부터 시작해서 팔순이 코앞이신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산행참여 기록이 저조한 나로서는 생소한 얼굴들을 익히느라 여간... 하지만 이상한건 처음본지 몇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모든 얼굴들이 금세 익숙해져 버려 꼭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어디선가 만난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다. 애써 기억을 해내려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당연한 건가, 전생의 인연 때문일까?

약속시간이 열추 지나자 마흔 대여섯명이 수락산옆의 불암산을 허위허위 점점을 찍으며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를 오르지 않아 찾아낸 평지에 일단 자리를 잡고 둘러 앉았다.

한사람 한사람 돌아가며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고 배고픔도 뒤로 미룬 채 그보다 더 영양가있는 여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몸뚱아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써야 한다는 비장한 말씀. 보이지 않는 또다른 감옥에서 아직도 옥살이를 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통일에 대한 열

망. 네살박이 회원에게서 발견하는 미래.

이런 가득함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안에서 자라는 꿈틀거리는 무언가의 몸짓.

나는 지금까지 내가 후원회 회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난 후원을 하는 후원회원이 아니라 바로 후원을 받는 후원인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런 산행을 통해 만나는 이 모든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야기를 들으면 서 보면서 내가 얻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 난 지금 나의 후원인들을 만나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겠다는 힘을 이 모임, 이 사람에게서 얻으니 말이다. 하등 후원받을 이쁜 것이라고는 한게 없는 나로서는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든든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소중한 만남의 시간들...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투쟁속에 동지모아’ 이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른다. 이젠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목청껏 소리높여, 그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어와 울리도록 힘차게 부른다. 머리 싸매고 혼자서 짓이겼던 이 세상 현실의 과제를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본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 봐야할 것, 들어야할 것, 읽어야할 것, 느껴야할 것, 그리고 행해야할 것. 아! 너무 많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여전히 나를 내리 누르는 문제들이지만 나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힘을 내어 발빠르게 움직이려 애쓰게 된다. 자, 힘내자.

* * * * *

오후 한시 반이 지나서 점심식사를 시작했다. 물론 그 푸짐한 맛과 양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젠 정상을 올라볼까? 역시 바위산. 정상 507M에 올라본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리 없다던가? 그 래, 밀어주고 끌어주고 가끔은 지켜봐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면서 함께 오르자. 큰 산이든 작은 산 이든 산을 오를 때마다 산을 오르는 그 한걸음 한걸음이 꼭 우리네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한 선생 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다. 산이 군데군데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었 다. 정상에 있는 방위표시를 확인하고서야 북녘을 가늠할 수 있는 나였지만 어떤이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다. 정상에서 노래 한곡. 우리 어여쁜 회원의 노래가 끝나자 좀체 정상을 내려갈 생 각을 앓는다.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열린사회모임의 노래를 듣고는 더이상 정상 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듯. 하나 둘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함께 정상을 오르지 못하고 남아계셨던 몇분과 다시 합류해서 함께 하는 놀이가 진행되었다. 봉산탈춤 가운데 팔목중도 배우고 택견 기본동작도 따라하다 아이쿠! 다리야. 이젠 서서히 떨어지는 해에 물들어 가 는 산을 보며 내려가야 할때다. 오를 때 보았던 단풍이 노을빛을 받아 더욱 깊은 가을색을 띤다. 그 모습을 두고감이 아쉬웠던지 걸음이 자꾸만 느려진다. 아이들의 노는 소리. 어른들이 공을 쫓아 뛰는 소리. 그리 고 동네 어느 한쪽끝인가에서 들리는 또다른 소리소리들이 어우러져 저녁 당고개역의 마을은 평화롭게만

보인다.

다음 산행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겠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다음엔 모두 함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깃군은 날씨변화로 이미 겨울나기 연습을 시작했다. 저 높은 담장, 차가운 쇠창살 너머 또 하나의 내가, 또 하나의 우리가 있다.

양심수...



이상(理想)에 가까워지기 위한 나의 하루

허 유 정 (25세, 간호사)

가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흔히 다짐하곤 한다. 절대로 병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 순간만이라도 병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고 치열하게 병원 이야기로 치달곤 한다. 그래서 이 원고만큼은 참신하고 밝은 이야기로 채우고 싶어 기간을 여겨가면서까지 고민했지만 직업의 고유한 특성상, 사생활의 극단적 부재로 인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길을 걷다보니 벌써 낙엽이 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을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이맘 때 나는 무척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학생이었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데 대해서도 민감했었고 심지어는 시시한 텔레비전 연속극에서조차도 눈물 짓기도 했었다.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작은 고통에도 마음 아파하고, 채 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기의 죽음을 본 충격으로 반년 이상을 괴로와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당당한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변모되었다.

좋은 말로 하면 이성적인 면이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 서울 시내에서 모여든 온갖 쓰레기로 가득찬 동대문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근할 때면 날씨가 상관없이 을씨년스러워지고 저기압이 된다. 다른 병동과 달리 분만실에는 시도 때도 없이 산모들이 들이닥치는 곳이라 결코 밤이라고 방심할 수가 없다. 자동문 아래 비치는 다리만 보고도 그 다리가 산모의 다리인지 아닌지 분간할 정도로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워낙 일복이 많아 밤새도록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나에게 장기입원 환자들이 붙여준 별명도 벌써 2개나 된다.

‘인간 촉진제, 해결사.’

별로 반갑지 않은 별명일 뿐 아니라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 내가 진정 하고자 하는 간호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그저 밤새 일만 하고 말았다는 느낌과 함께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 쓰러져 자곤 하는 나의 모습이 반복될 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의 탄생이란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준다.

엄마에게서 처음 독립적인 개체로 떨어져 나와 터뜨리는 첫 울음소리와 나의 손가락을 힘있게 움켜쥐는 작고 앙징스런 손가락, 밟그레한 몸뚱이를 볼 때면 피곤함 속에서도 희열을 느끼곤 한다. 시원찮은 울음이 마음에 안들 때면 울어라 울어라 궁둥이를 때려가면서…….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할 기쁨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물론 극과 극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탄생의 기쁨이 있으면 죽음의 슬픔 또한 존재한다.

간호사로 일한 후 많은 아기들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학생시절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느낄만한 여유도 부족할 뿐더러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일 것이다. 죽은 아기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시간 안에 주어진 일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인 것이다.

슬픔은 속으로 삭여가면서 나는 오늘도 조금은 더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과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선생님의 발이라도 녹여 드렸으면...

김동기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편지, 저희 교회가 기쁘게 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천리타향, 남의 나라에 몸붙혀 사는 몸이지만 늘 내 나라,

내 고향 그리는 마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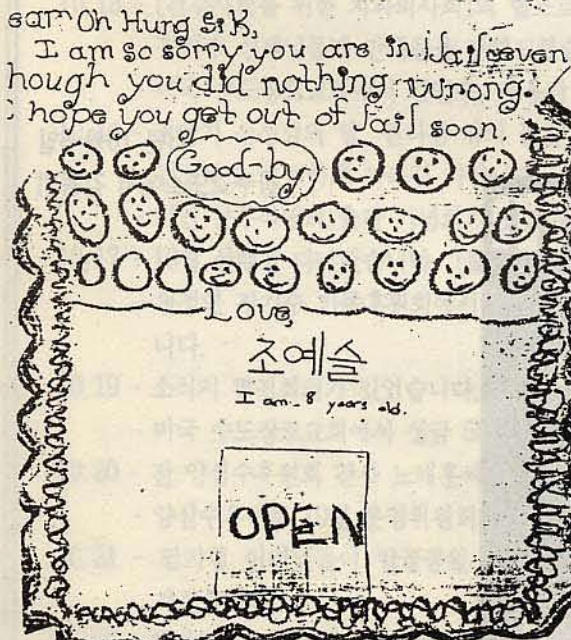
이제 서른번째로 맞으실 음혹하고 뼈속이 저려오는 겨울이 속절없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으로 가소서.

차마 얇은 마음, 작은 정성을 보태어 선생님의 발이라도 녹여 드렸으면 무한 기쁘겠습니다.

몸 건강하심을 기도드립니다.

- 한글산 드림 -



이 편지는 대구교도소에 25년째 수감중인 오형식 선생님께 보내는 8살박이 조예슬양의 편지입니다.

이번호부터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를 실고 있습니다. 위의 편지는 우리나라의 양심수를 후원해주시는 미국 워싱턴 수도장로교회 교우님의 편지글입니다. 양심수와 주고 받는 편지가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그 사랑의 따뜻한 체온을 느낍니다

정성들여 보내주신 목사님과 한글산 님의 편지는 10월 5일 놀라움과 기쁨속에 읽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인간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독방생활의 체험을 겪은 인간만큼 인간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워해 본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과 교인들의 소식은 저 자신을 이 세상에 한 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쁨이었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랑의 따뜻한 체온을 내가슴에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산 선생님이 보낸 편지 중에서 “넓은 마음 작은 정성을 보태어 선생님의 발이라도 녹여 드렸으면 무한히 기쁘겠습니다.”는 구절은 진정한 인간애의 표현이어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니 제 손발이 왜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생활에서 무엇에 열중하지 않아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낀다면 그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데 열중하는 습관이 있어 이 생활을 견디어 내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겨울준비로 세탁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독서시간이 줄어 좀 불만이랍니다.

목사님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93년 10월 8일
광주교도소에서 김동기



김동기선생님은 1932. 10. 19 함북 성진에서 태어나셨으며, 지금껏 30년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계신다. 가족은 모두 평양에 있어 무의 탁자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 10. 1 - 한가위를 맞아 “푸른 소나무 무료 대여실” 팀과 회원 여러분이 이경구 선생님 댁을 방문 하였습니다.
- 10. 2 - 여러 회원들이 민중탕제원과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 10. 3 - 민가협 간사들과 회원 여러분이 수유리와 봉천동 만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 10. 4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을 보내주셨습니다. (9월분 도착)
- 10. 7 - 민가협 어머님들이 탑골공원에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가졌습니다.
- 10.10 -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당하신 고 신향식 선생님 11주기 추모 모임이 광주 공원묘지에서 있었습니다.
- 10.11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에서 보내주신 성금을 인출했습니다. (240,500원)
- 10.12 - [후원회 소식] 24호를 발송했습니다. 손민아님이 수고하셨습니다.
 -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에서 민가협 어머님들의 ‘양심수 겨울나기 장터’가 있었습니다.
 - 유가협 장터를 방문했습니다.
- 10.13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구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장기수 선생님들께 안내문을 전해드렸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김인수, 우용각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 10.14 - 권낙기 선생님의 딸, 권다정 양의 뒤편치가 있었습니다.
 -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시인 문부식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 10.17 - 10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불암산, 46명 참석)
 - 천정연 장기수 가족후원회에서 장기수 선생님 집 마련을 위한 주점을 이틀동안 열었습니다.
- 10.19 -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을 보내주셨습니다.
- 10.20 - 전 양심수후원회 간사 노태훈씨가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10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10.21 - 민가협 어머님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조작간첩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집회”를 가졌습니다.
- 10.25 - 민가협 10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10.26 - 장기수 선생님들께 [말]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10.27 - 장기수 선생님들께 영치금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미국 수도장으로 교회에서 후원하는 무연고 장기수 열분께는 각 4만원씩을 보냈고,
나머지 69분께는 각 1만원씩 발송했습니다.

10.28 - 탑골공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과 강기훈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 회원 기획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7:30, 사무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10.29 - 10·28 건대항쟁 계승 7주년 기념식 및 문화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11. 1 - 대구에 계신 김종호 선생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정숙 후원회원과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양심수후원회 주최, “역사기행”을 갑니다!

제5차(93년) 정기총회에서 회원 교육사업의 하나로 결의된 역사기행을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숨결이 새록새록 새겨져 있는 그날의 현장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고픈 분들은 지금 곧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일 시 : 93년 11월 27일(토) - 28일(일) / 1박2일

기행지 : 정읍 - 순창 - 황토현 - 전봉준 생가 - 만석보터

회 비 : 1인당 40,000원 (교통비, 식사비 포함)

출 발 : 11월 27일 (토) 오후2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야외주차장 앞에서

준비물 : 두꺼운 옷, 등산화, 필기도구, 세면도구, 손전등, 맛있는 밑 반찬

(연락처 : TEL) 765-5282 / 763-2606

* 11월 산행은 쉽니다.

2. “컴퓨터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회원분께 ‘넥스텍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 전 유가협 사무국장 박래군

넥스텍 시스템 (NEXTECH SYSTEM CO. T)275-0486 266-4149 F)277-5481)은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오는 이들이 모여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넥스텍 시스템 구성원들은 양심수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다년간 컴퓨터 정보통신망 “평화만들기 BBS”를 운영하고, 다양한 그룹의 사용자들을 교육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넥스텍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일은 물론 상위 기종으로의 업그레이드, 고속 팩스모뎀, 노트북 컴퓨터,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안정성과 신뢰성, 확장성, 철저한 A/S 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정직’과 ‘신뢰’의 이름으로 기억될 넥스텍 시스템에 맡겨 주십시오.

3. 민가협 ‘93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도움을 주실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벌써 4회째를 맞는 민가협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올해도 12월 11일(토), 12일(일)에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77명의 장기수들과 300여명 양심수들의 석방을 염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양심수가 옥문을 열고 나오는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활동내용 : 홍보활동, 차량지원, 포스터 부착, 표판매 등

단 하루라도 도움을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4. 「후원회 소식」지의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후원회 소식」지와 함께 일할 새 일꾼을 찾습니다.

소식지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5. 대전「사랑의 집」집들이가 있었어요.

오랜 옥고 끝에 풀려나신 김명수, 김용수, 함세환 선생님이 대전 NCC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민주단체의 노력으로 안정되고 희망찬 살림집을 마련하셨습니다.

방3개에 텃밭도 있는 공기맑은 곳입니다.

주소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649-4 입니다.

10월에 구속된 양심수

1. 정재호 - 현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지난 6월 남북학생 전화회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중이었다가 10월 3일 구속되었습니다.
2. 양건웅, 손병구 - 고려대에 다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10월 12일 기무사에 연행, 구속되었는데 사유는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관련입니다.
3. 노중선 -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중선씨는 10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노씨는 김낙중씨가 소장으로 있던 평화통일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내다가 '간첩방조' 혐의로 재판중이였습니다.
4. 김 석, 허 탁, 박영재 - 90년 11월 안기부에 의해 학생운동의 배후조직이라 발표된 일명 '자주민주통일 그룹' 사건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수배를 받아오던중 10월 7일, 30일 각각 경찰청 남영동 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5. 김동훈 - 인제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10월 14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6. 오영훈 - 현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의장으로 남북학생 전화회담으로 수배를 받던 중 10월 30일 제주 경찰청에 연행되었습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 | |
|---------------------|----------------------|
| 1. 김준목 (마포구 연남동) | 2. 한선경 (인천시 남동구) |
| 3. 고성사랑청년회 (경남 고성군) | 4. 김윤정 (동작구 사당동) |
| 5. 한경미 (관악 봉천동) | 6. 향린교회 청년부 양심수 후원모임 |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① ① ① - ⑤ ④ ②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